

실속 재테크

내집 마련 보금자리론 활용

담보대출로 잔금 선납땀 6% 깎아준다

LH·HF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서비스... 실속 집 장만 기회

최근 A씨는 입주예정인 주공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려 무려 600만원을 할인받은 뒤 집을 장만하는 훌륭한 재미를 누렸다.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분양아파트 잔금을 치르면 가격의 6%를 깎아주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서비스를 이용한 덕분이다.

22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HF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최근 이들 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서비스 지원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LH는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급

및 잔금을 선납할 경우 6%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1억원의 중도금을 선납하면 6% 선납할인율에 따라 600만원을 즉시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1억원을 은행에 정기예금할 경우 정기예금(이율 3.9%) 이자소득 15.4%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이자소득은 330만원만에 그쳐, 선납할인보다 270만원 이익이 줄어든다.

LH는 입주 후 분양잔금 전액을 선납할 경우 광주 동천3단지 84㎡의 경우 1350만원, 진월6단지 111㎡는 1470만원, 진월7단지 84㎡는 990만원을 할인받는다. 여기에 이달 말까지 분양잔금을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금액과 별도로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2%의 취·등록세율을 1.1%로 적용받아 광주 동천3단지 84㎡의 경우 160만원, 진월7단지 84㎡는 140만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

분양잔금이 부족한 계약자들에게는 HF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준다.

HF의 보금자리론 대출은 3.59% 수준의 변동금리로, 3년거치 후 15년·20년·30년 만기 고정금리로 전환된다. 3년 변동금리 기간에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LH에 중도급이나 잔금을 선납,

6%의 선납할인을 받을 경우 광주 동천3단지 84㎡는 320만원, 진월6단지 111㎡는 220만원·141㎡는 306만원, 진월7단지 84㎡는 19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김영범 LH 광주·전남본부 주택판매팀 차장은 "분양잔금 준비가 어려운 분양계약자들이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LH에 분양대금을 선납하면 이자 차이를 쫓길 수 있다"며 "시중은행보다 금리도 저렴해 실속있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선납할인 문의는 LH 주택판매팀 380-0511~2, 보금자리론은 HF 광주·전남지사 370-5722~3으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가 22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롯데슈퍼센터 앞에서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저지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시민단체 "SSM 입점 막겠다"

광주에서 대기업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결의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광주시는 22일 대기업 유통업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SSM 진출로 인해 지역 상권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자체, 시민단체, 중소기업체가 공동으로 SSM 진출을 저지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국회에서 SSM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분분한 SSM 사업 가맹점, 직영점 입점 확장을 보류해 줄 것을 대기업에 요구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도 이날 별도로 서구 풍암동 롯데슈퍼센터 앞에서 대기업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저지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광주네트워크는 결의문에서 "롯데가 자진철회를 하지 않는데 롯데 독과점 반대 범시민운동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SSM 입점을 철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롯데슈퍼 측에 SSM 입점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롯데슈퍼'라는 가맹점 브랜드 형태로 광주 남구 노대동에 SSM 개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인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민기자 emlee@

광주지역 백화점 정기세일 돌입

25일부터 최고 80% 할인가 공급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25일부터 여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기세일에는 지난해보다 브랜드들의 참여율이 높아졌으며 백화점별로 다양한 기획행사도 준비됐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백화점의 '여름 해피 세일'에는 명품 브랜드들의 시즌오프 상품 물량이 겹쳐 연중 가장 많은 세일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부르다문과 앙스모드, 파코라반

30%, VOV와 운엔은, 캄브리지 20%, 나이키와 아디다스 10% 등 브랜드별로 할인율은 다르다.

세일 기간에만 특가로 한정 판매하는 '바겐스타' 상품 물량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많아졌고, 겹과 타미힐 피겨, 맨스타 등도 20~30% 할인된 가격에 나온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20여개 품목을 정상이 대비 최고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풀프라이스 상품전'을 비롯해 '섬머 뷰티 페어' 등

다양한 기획행사를 진행한다.

또 샌들, 선글라스, 수영복 등 상품 기획자(MD)들이 선정한 여름철 7가지 인기 품목을 20~60% 할인 판매하는 '시즌 7대 품목 기획전'도 준비됐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 '여름 정기 파워 세일'을 열고 버버리·막스마라·듀폰 등 해외명품을 30% 할인 판매한다.

한편, GS샵, 롯데닷컴, 다앤샵, 현대H몰, CJ몰 등 온라인몰도 이번주부터 일제히 여름 세일에 들어가 백화점과 경쟁을 벌인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닛산 '올 뉴 인피니티M'

한달만에 700대 예약판매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브랜드의 판매 세단인 '올 뉴 인피니티M'의 예약 판매 실적이 한 달 만에 700대를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나이토 렌즈 한국닛산 대표는 "지난달 말 사전공개로 통해 확인된 이차에 대한 한국 고객들의 기대는 예상을 뛰어넘는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4년 만에 새롭게 나온 올 뉴 인피니티M은 3.7ℓ VQ37 엔진을 장착한 'M37 스탠다드' 및 'M37 프리미엄' 모델과 고성능 5.6ℓ VK56 엔진의 'M56 스포츠' 등 3가지다. /연합뉴스

대형마트도 허위가격 표시

공정위 피해주의보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에서 진열대에 표시된 상품가격과 계산대에서 청구하는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서로 다른 사례가 빈번하거나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

되면 사실을 거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때 업체명을 공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해당 마트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께 한 대형마트에서 부엌에서 사용하는 행주건너타월을 구입했다. 이 행주건너타월

의 진열대 표시가격은 8580원, 그러나 A씨가 계산대에서 지불한 실제 가격은 1만2500원이었다.

계산을 마치기 위해 꼼꼼히 지불내역을 살피던 A씨는 행주건너타월의 실제가격이 표시가격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서 항의했고, 이에 대해 마트 측은 차액(2670원)보다 많은 5000원 짜리 자사 상품권을 A씨에게 제공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허위표시가 빈발하거나 조직적이라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이전에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with slogan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제주도 가 더 가까워집니다' (Jeju Island is closer) featuring a ferry and a list of travel packages with prices.